

사람은 하나님 종류

성경말씀: 창1:26-31

60억의 사람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시작을 알면 알기 쉽다.

창세기는 시작을 보여 주는 책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교회에서도 무시당하는 책이다. 특히 1-11장, 12장 이후만 다름.

인간과 우주와 만물과 민족과 국가와 기독교와 이방 종교(천주교)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처음에'(In The Beginning)라고 불렀다.

핵심 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1:1)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은 다르므로 범신론 불가
유일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무효하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이다. "이것만 없으면 믿겠다."

기독교의 기초가 창세기 1장이다. 집을 지으면서 무엇을 먼저 하는가? 기초를 세운다.

그 위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서고 넘어짐은 창세기 1장에 달렸다.

창조가 안 믿기면 부활을 어떻게 믿을까? 휴거를 어떻게 믿을까?

특히 여기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 종류"

창세기 1장의 구조

첫째 날(3-5):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눔

둘째 날(6-8): 궁창 창조, 위의 물, 아래 물

셋째 날(9-12): 육지와 바다 창조, 땅은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넷째 날(13-19):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20-23): 어류와 고래들 그리고 조류를 그것들의 종류대로

여섯째 날-1(24-25):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여섯째 날-2(26-31):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1, 2절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한다. 3절 전에 1, 2절이 있다.

1, 2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은 우주공간과 지구이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셨다(2:1; 출20:11).

하나님이 우주공간과 지구를 만들고는 그 안에 필요 요소를 채우는 과정이 3-31절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성경이 말하므로 그대로 믿는다. 더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화론과 맞추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 말씀이 6000년을 말하므로 그대로 믿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땅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과정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과정과 비슷하다.

I. 무질서(2).

a. 형태가 없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

님과 원수가 된다. b. 비어 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롬7:18; 욥14:4).

c. 어둠이 덮여 있다. 마귀는 어둠의 통치자이다. 하나님이 빛을 주셔야 어둠에서 나온다.

II. 성령님의 일(2). 땅은 스스로 돌 수 있으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령님이 움직이신다.

자연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진화론도 안 된다. 오직 창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후5:17)

III.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다. 바로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 있다. "나사로야, 나오라!"(요11:43)

IV. 하나님은 나누신다(4-5).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나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나눈다

(고후6:14-18).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공존하지 못한다.

V. 열매 맺는 방법(11절): 열매 속에 씨가 들어 있다. 열매는 성령님이라는 씨가 빚어내는 결

과이다. 그 씨가 있으면 자동 산출된다. 상태에 따른 결과이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는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자기 종류대로 맺는다고 했다. 마귀의 종류와 그리스도의 종류가 있다. 교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다.

VI. 광체들의 위치(15절): 광체들은 지구 위에 있어야 한다. 지구 안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위에 있어야 한다. ★★★

VII. 하나님의 형상(26-27)

오늘 휴양회를 간다. 산과 강에서 새, 벌, 물고기, 강아지, 꽃, 지렁이, 메뚜기를 볼 것이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새, 벌, 물고기, 강아지, 꽃, 지렁이, 메뚜기 종류로 만드셨다. 생물 분류: 생명, 도메인, 계, 문, 강, 목, 과(family), 속, 종
성경이 말하는 종류(kind)는 과(family)를 뜻한다: 개과에는 여우, 늑대, 개(수백 종류의 개)
휴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종류 한 종류 특별히 설계하신 것을 눈여겨보자. ★★★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람은 그것의 종류대로 지어졌다는 말이 없다. ★★★

종류 대신 형상과 모습이라는 말이 나온다.

잠자리는 잠자리 형상과 모습을 가진 종류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잠자리 노릇만 한다.

개는 개 형상과 모습을 가진 종류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개 노릇만 한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 노릇을 하라고.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의 모습이다.

능력과 지성이 대단하다. 말, 글자, 언어, 악기, 농작 능력,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지어짐. 타락 이후에도 수명이 원래 1000살까지 가능하였다.

이번에 휴양회를 가서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아야 한다. ★★★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로 인해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쇠퇴하였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육이 아니다. 남녀의 모습이 아니다.

도덕적 성품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히1:3).

VIII. 영광의 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리를 주셨다(28절).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1000년 왕국에서 통치하며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어 온 우주공간을 다스릴 자들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31절: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져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 ★★★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다(창5:1-3). ★★★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필요하다.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일이 필요하다(롬8:28-29).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벧후1:4).

참으로 대단한 존재들이다. ★★★

결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병든 자, 찌그러진 자, 가난한 자

다 부족하지만 영광스런 모습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바뀔 날이 있다.

반대편에 속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 ★★★

나는 누구의 형상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인가? 마귀인가? (마7:21-23)